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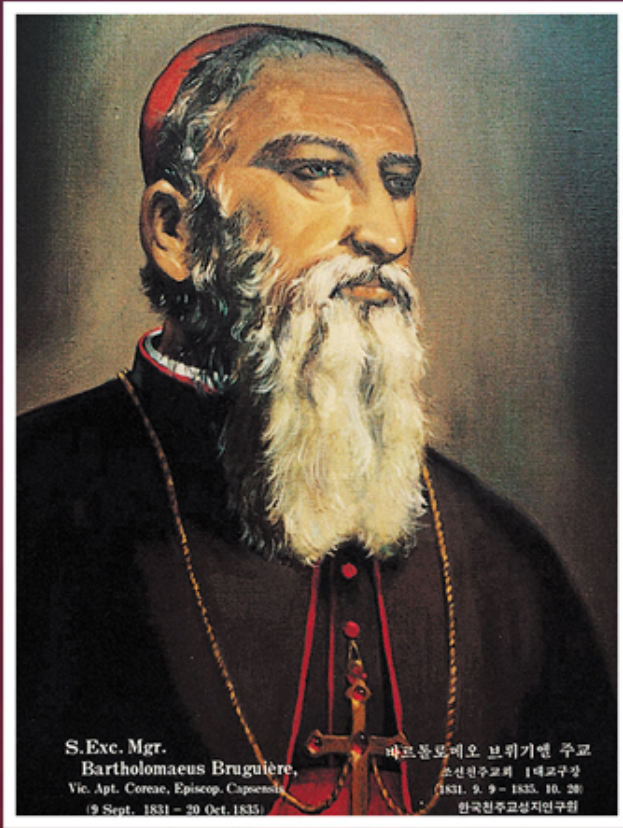


청주교구
이태종 요한 신부



기사의
의
양심





아시다시피
사도로부터 이어오던 2000년 가톨릭 신앙은
1831년 9월 9일 북경교구로부터

조선교회를 낳습니다.

모 교회인 중국대륙은 첫 본당 주임으로
주문모 야고보 신부님을 파견했고,

첫 교구장 브뤼기엘 소 주교님





두 신학생
(現 대전교구지역)을
십 수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교육시켜서
부제, 사제까지
만들어
줍니다.





차쿠는

박해시기 세계교회가
우리를 도왔던 교두보입니다.
파리 외방 선교사들이 압록강의 결빙을 기다리던

조선 선교사대기소가 있었고,

영토는 청나라 땅이었지만

교회는 조선교구 소속 본당이었습니다.

조선신학교가 있었고 (최근 길림교구 대신학교학장 日, 중국출신 신부명단도 나옴)

병인박해가 극에 달하자 1868년, 6대 교구장 리델주교는

임시 **조선교구청사**를 이사해 옵니다.

김대건 신부의 서한 일람표



이보다 일찍

1842년 김대건 신학생이

요동의 백가점에서

4통의 편지를 쓰는데.....



번호	발신일	발신처	수취인	접수 일자
1	1842.2.28.	마닐라	르그레주아	
2	1842.5	주산	리부아	
3	1842.9	상해	리부아	1842.9.27.
4	1842.12.9.	요동,백가점	르그레주아	1844.2.27.
5	1842.12.21.	요동,백가점	리부아	1843.10.9.
6	1843.1.15	요동,백가점	르그레주아	1844.2.27
7	1843.2.16	요동,백가점	리부아	
8	1844.5.17	몽고 소팔가자	리부아	1844.9.29
9	1844.12.15.	몽고 소팔가자	페레올	
10	1845.3.27.	서울	리부아	1845.10.14.
11	1845.5.6.	서울	리부아	
12	1845.4.7.	서울	리부아	
13	1845.6.4.	상해	리부아	1845.7.23.
14	1845.6.4.	상해	페레올	1845.7.23.
15	1845.6.	상해	고틀랑	
16	1845.7.23	상해	리부아	1845.10.14.
17	1845.7.23	상해	페레올	1845.10.14.
18	1845.11.20	서울	리부아	1846.4.11.
19	1846.7.30	옥중	베르뇌,메스트르 리부아,르그레주아	



그로부터 7년 후
백가점이
차쿠(岔溝) 본당으로
승격되어
최양업 신부님까지
정식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J. N. J.

314

6 851

De ritibus ac ceremoniis sinensibus jurastrum

Ego Thomas Carlye missionarius cocanus ad tempus in Manchuria degens, praescripti
 ac mandati expressis super ritibus ac ceremoniis sinensibus in Constitutionali Summo
 Rege Xi haec de re edite, quae praesenti jurastrum formulae praescriptae est,
 contenta, ac mihi per integram Constitutionis hactenus expressam in tota,
 plane ac fideliter parati, itaque exacte, absolute ac inuisibiliter observari
 et obsequi illa tunc iuramentum adimplere, ut pro virili curam, ut a Christianis
 sinceritas, quorum officium in directionem meam modo me habere contigit,
 si mihi obediens sedem praestiterit, etiam si quod quaestio in me est, nunquam
 patiar et ritus, ceremonias sinenses in alioquin praescriptis Partibus Mandari
 Affinitate diei octavo 1744, parata, ac a sanctissimo Rege Benedicto Rege
 Xi demum ab eisdem Christianis ad praesens documentum Praesentem quod dicitur
 Quod quapropter contra iuramentum statim quatenus vel exierit, praeis per praedictas
 Constitutionales impositis mandata iustitiam non est debere. Ita tunc de re per
 Evangelium promittit, non est iuro. Per me Deum dicitur et haec sancta Dei Evangelium.

Godsbijngli programma.

Thomas Carlye

Bye Sangi scripsit, Mandchuria et Seodong Persicurus, pastor
 M. D. Chosunum Carlye, presbyterum Cocanum, inter manus
 meas jurastrum, quod a superioribus scriptum fore videtur, praestitit.
 In signum fidei subscripsit et sigillo missionis meae.

Et hic Praesens die 21 Junii 1849.

Bernung
 Prop. Mand. 174



2019년이

차쿠의 토마스 초이

사목선서 170주년

Ex illa die / Ex quo singulari





첫 사목지 차쿠에서 (보편교회 차원으로 말하면) 충북 진천 배티 사목중심지로 이동되신 최신부님은
한강이남 전체를 대상으로 13년 가까이 순회사목하시다가 **길 위에서 과로사**를 하십니다.
(과로사 부분에서는 중국인들도 감동함)



마침, 배티 인근 출신

사제 하나가

차쿠 현지에서

최양업 신부님을

본받아 살고 있습니다





원래는 중국교회 부지에서
외국 성직자가 상주할 수 없으나,
불가능한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전임 중국 사제를 간병하며
산다는 조건으로...



대련성당



현 차쿠공소의
 사목구 주임이었던
 故 대련본당

중국인 전영부 신부님은

대성당을 신축하고
 뇌질환으로 쓰러졌습니다.

(2018년 2월 14일 차쿠에서 선종)



묘하게도
 전임 대련본당 주임인
 중국인 故 전영부 신부님과
 배티 출신 **이태종 신부의**
 생.년.월.일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신 같지만
효과 만점이
중국 사제단의
여러 입들을 막았으며,

종교국 관리들과
심지어
공산당원한테까지
아무 문제가
없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배 주교님



종교의 불모지 중국에서,

한국 성지가 개발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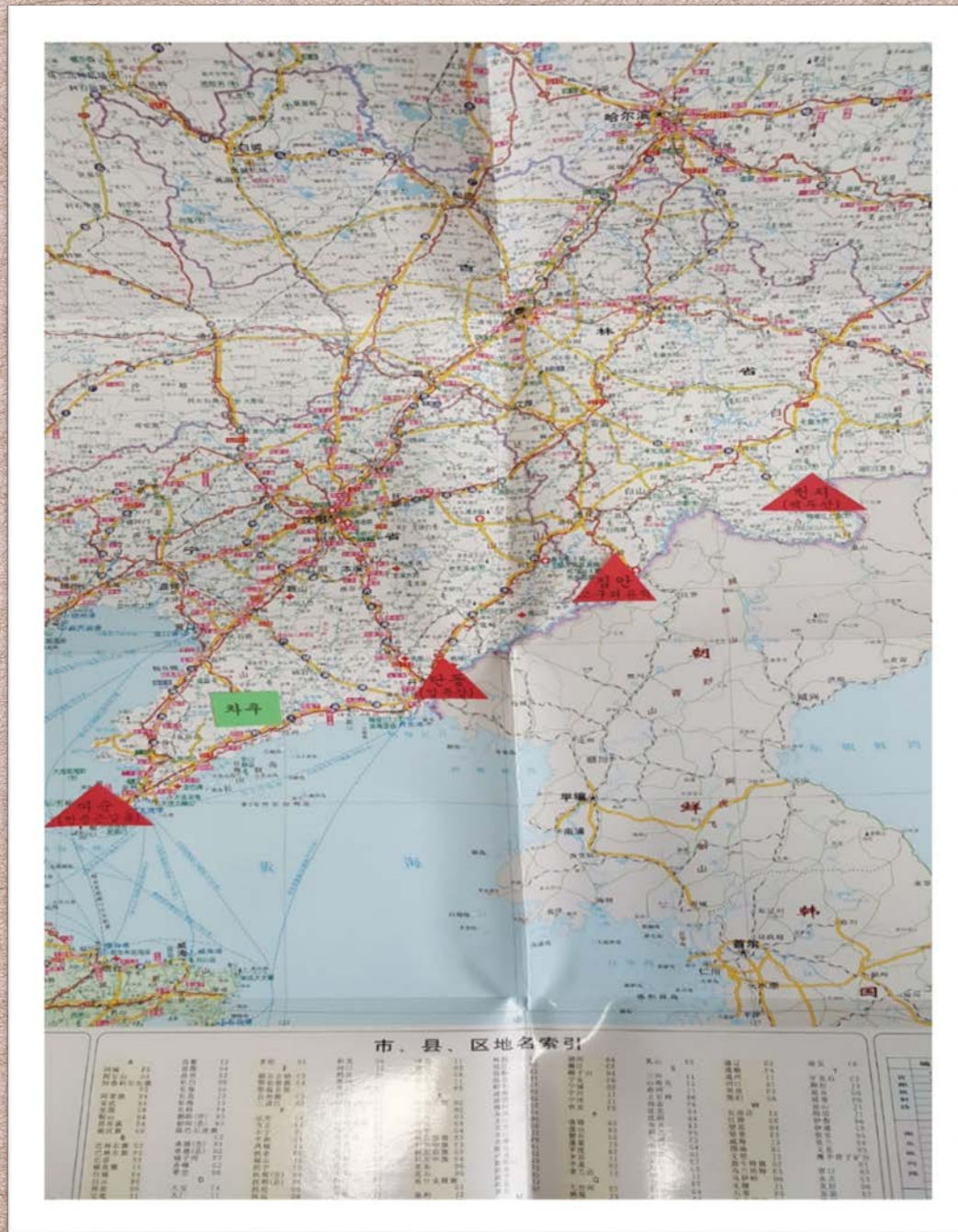
2시간 거리 안에

안중근 여순 감옥이 있고,

단동의 **압록강 뱃길**(북한)이 있으며,

거기서 3시간만 더 가면

백두산 천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쿠를 방문하는
한국인에게

미사를 할 수 있고,



2019년부터

순례객의 투숙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차쿠 신부는

중국 신학교에서

후진을

양성하였고,



신학교 신학생





遼寧大學
LIAONING UNIVERSITY

硕士学位论文
THESIS FOR MASTER DEGREE

韩国老年人福利政策研究

Research on Korea's elderly welfare policy

论文作者: 李泰钟 (韩国)

指导教师: 罗元文 教授

专 业: 社会保障

完成时间: 二〇一五年五月



2015년

이태종 신부가
요녕대학에서 쓴
석사논문도

노인복지 문제이고,

현재 차쿠에 **노인주간보호센터**인
탁 로 소 를 개 관 하 려 고 합 니 다. 이미
중국 예수성심수녀를 파견(2명) 받았고,
차쿠를 관리하는 정부의 부서가
통일전선부나 종교국에서
여행국과 복지국으로
옮겨지는 추세로 보아
법 인 취 득 을
긍정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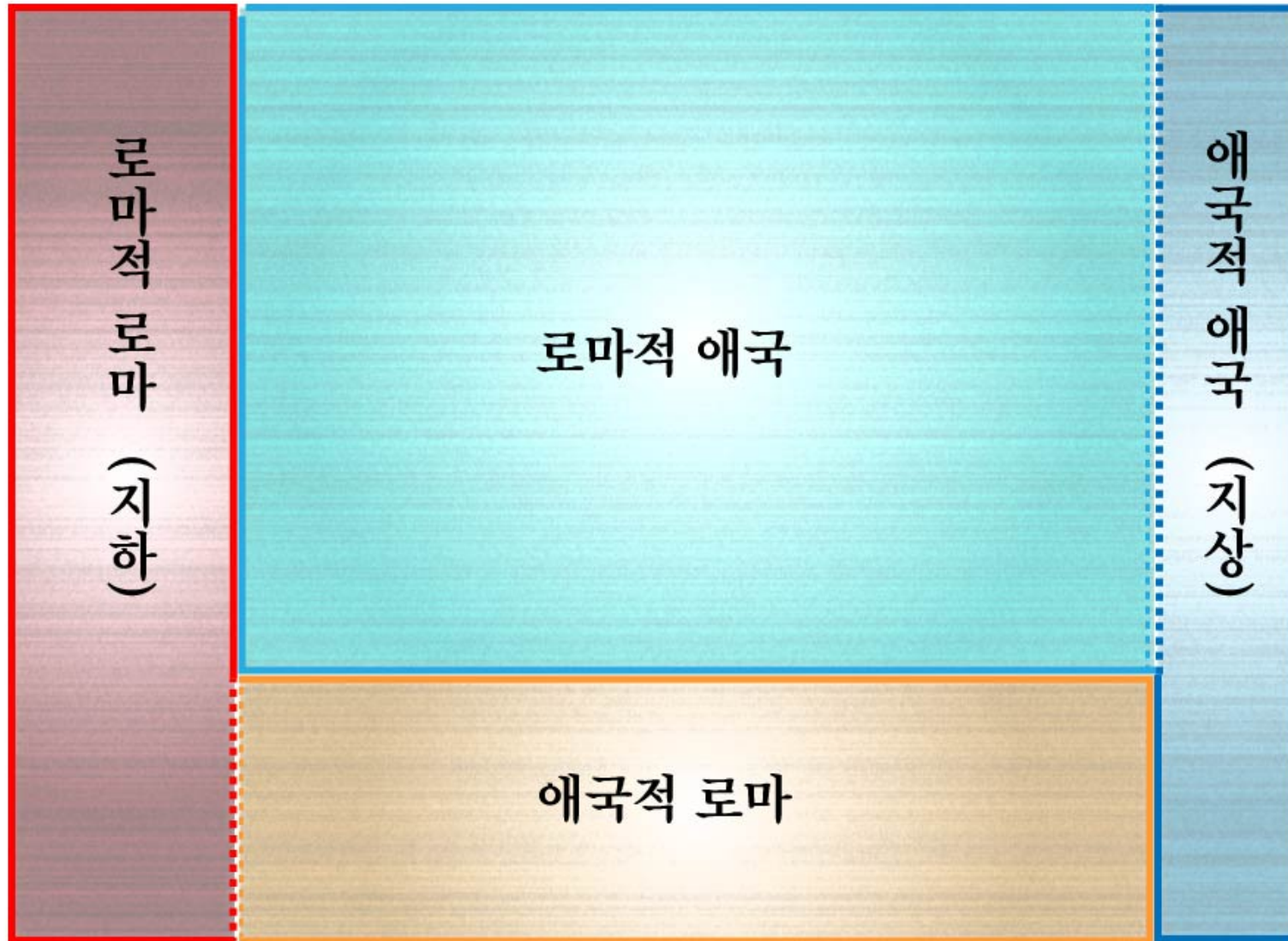
차쿠성당 축성미사를

집전하는 중국 요녕교구 배군민 주교님과 사제단입니다.





중국 천주교 현지 체감 분포도



현재의

중국 천주교를

단순히

지상(=애국, 공개)과

지하로

양분할 수

없습니다.





**복잡한 환경
하에서도 차쿠 사적지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60년 비추어온 빛

청주교구 60주년 기념詩

빛

빛이 있는 곳엔

생명生命이 자라난다.

한국 천주교 역사는 빛의 역사이다.

선조들은 서학서적에서 진리眞理의 빛을 발견하고

열광했다.

만민평등 미신타파 계몽사상

당시대 필요한 빛이 거기에 있었고

스스로 빛의 무리가 된다.

순교는 가장 강한 빛이었으니

모진 고문과 치명의 순간까지

그 찬연한 눈빛을 세상에 비추었다.

마침내 한불조약으로 자유가 왔을 때

천주교 신앙은 융성하였다.

임가밀로 신부의 행차 길엔 온 감곡이 환호했고

옥천의 예비자교리서는 100배의 금값에 암거래된다.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해방까지도

순교의 피는 신앙의 많은 싹을 틔우기에
아직 흥건한 것이었다.

이어 1950~60년대, 갓 태어난 청주교구는
한국교회와 명암을 같이 한다.

전란 후 배고픈 시절 육신肉身의 필요를 주었으니
메리놀회가 선도해 간 시대의 빛이었다.

1970년~80년대, 교회는 정신精神적인 필요에도 앞장선다.

80년대 말, 전국의 성당이 예비자로 가득했던 것은
교회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지요 박수였다.

그러면 90년대 들어와 지금 2000년대까지
교회는 우리사회에 어떤 빛을 비추고 있는가?

어떤 기쁨으로 시대時代의 마음을 사로잡는가?

다시 교회가 한국의 문화를 선도해 갈 수 있을까?

지난 60년을 선도해온 빛으로서, 오늘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새 시대의 빛이 있다면

무슨 빛일까?





일상 생활의 순교 모범이신
가경자 사제 최양업 토마스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